

# 트와이스, 트둥이에서 톱 걸그룹으로

## 데뷔 1년4개월 만에 첫 단독 콘서트 '트와이스랜드 - 더 오프닝'



19일 오후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펼쳐진 트와이스의 단독 콘서트 '트와이스랜드 - 더 오프닝'은 어느덧 트둥이(트와이스+귀염둥이)에서 명실상부 톱 걸그룹으로 성장한 이 팀의 모든 걸 보여준 자리였다. 지난 2015년 10월 첫 앨범을 내놓은 트와이스가 단기간인 데뷔 1년4개월 만에 개최한 첫 단독 콘서트다.

'컬러팝'으로 대표되는 귀여운 걸그룹 '트와이스'만 떠올리고 공연장을 찾았다면 눈이 휘둥그레질 법하다. 19일 오후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펼쳐진 트와이스의 단독 콘서트 '트와이스랜드 - 더 오프닝'은 어느덧 트둥이(트와이스+귀염둥이)에서 명실상부 톱 걸그룹으로 성장한 이 팀의 모든 걸 보여준 자리였다.

지난 2015년 10월 첫 앨범을 내놓은 트와이스가 단기간인 데뷔 1년4개월 만에 개최한 첫 단독 콘서트다.

정규 앨범 한 장 없이 미니앨범 3장만 내놓았을 뿐인 이 팀은 그런데도 2시간30분을 충분히 장악했다.

'우아하게' '치어 업' 'TT' 등 주로 밝고 발랄한 노래로 인기를 얻은 이 팀의 멤버들은 실력은 사실 만만치 않다.

이미 데뷔 전부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살아남은 멤버들이다.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와 음악채널 엠넷이 손잡고 펼친 서바이벌 프로그램 '식스틴'에서 살아남은 아홉 명이다.

햇볕을 입고 강렬하고 웅장한 사운드의 터치 다운과 '아이 고나비 어 스타'를 선보인 공연 초반 무대는 들끓는 에너지로 강렬함을 선사했다.

"귀여운 거 말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자"(지효)라는 결심으로 준비한 유닛 무대도 색달랐다.

지효, 정연, 미나는 보이시한 정장 옷

을 입고 마돈나 &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포미닛(4minutes)'을 선보이며 강렬한 걸크러시를 뽐냈다.

채영, 나연, 모모, 사나는 팝 디바 비운세의 운세를 통해 트와이스 멤버들이 평소 보여주지 않았던 색시함을 뽐냈다.

막내 라인인 다현과 쥬우 고양이 옷을 입고 '터보'의 검은 고양이 네로를 들려주며 여전히 귀여움을 뽐냈지만, 두 사람은 평소 감춰왔던 피아노 연주 실력과 랩 실력을 동시에 공개했다.

가장 큰 호응을 얻었던 무대 중 하나는 남성 아이돌 그룹들의 대표곡을 커버한 순간이었다.

김군무가 인상적인 핵소의 '중독'에서는 트와이스가 카리스마도 가진 팀이라는 걸 입증했다.

세븐틴의 '예쁘다'에서는 좀 더 역동적이고 활발한 쾌활함을 뽐냈다.

이날 콘서트 콘셉트를 '놀이동산'으로 잡은 만큼 멤버들의 장기인 귀여운 매력도 잊지 않았다.

카드 캡처 체리 '세일러 문' 등 애니메이션 주제를 들려줄 때 곳곳에서 "귀여워"라는 우렁찬 목소리가 쏟아졌다.

남녀 비율이 평소 다른 가수들의 콘서트보다 남성 쪽에 쏠린 8대4를 기록한 객석의 환호와 함성은 히트곡 '치어 업' 등이 울려 퍼질 때 더 굽직하고 두꺼웠다.

사나의 '치어 업' 애교 포인트인 '샤사샤'는 운동 경기장의 환호성에 가까웠다.

트와이스의 인기 비결은 아홉 멤버 모두 '센터'에 설 만한 외모뿐 아니라 매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콘서트에서 멤버들은 숨겨진 매력을 뽐내며 현재 자신들이 왜 톱 걸그룹으로 자리매김했는지를 증명했다.

나연은 능숙한 진행, 정연은 숨겨둔 애교, 모모는 고급스러운, 사나는 색시함, 지효는 춤 실력, 미나는 고혹, 다현은 무대 장악력, 채영은 물 오른 미모, 쥬우는 자신의 미모 못지않은 무대 매너 등을 뽐냈다.

화려한 외모만으로도 증강현실을 응용한 듯한 각자 멤버들의 영상은 팬들이 그녀들과 데이트하는 상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트와이스 멤버들은 동시에 지치지 않은 에너지로 팬들을 내내 들뜨게 했다. 첫 단독 콘서트인 만큼 노련한 선배 아이돌 그룹보다 진행은 능숙하지 못했지만, 무대 위에서 멤버들끼리 즐기는 모습은 그 어떤 꾸밈보다 진정성이 배어 나왔다.

나연이 보이시한 매력의 정연에게 계속 애교를 시키며 즐거워한 모습이 예뻐 보였다. 정연은 "왜 나만 시켜"라고 투정부리면서도 곳곳에 애교를 부렸다.

이날 5000석을 비롯해 지난 17일부터 같은 곳에서 펼쳐진 이번 콘서트는 총

1만5000석 규모로 단숨에 매진됐다. 정연은 "상상만 했던 첫 단독 콘서트 순간이 진짜 오니 기쁘다고 말했다.

놀이동산 콘셉트는 안코르까지 이어졌다. 사진을 찍고 함께 춤을 추고 트와이스와 관련 퀴즈를 풀고, 환호성이 특정 데시벨을 찍은 후에야 멤버들은 1층과 2층 객석 사이 통로에서 이동차를 타고 움직였다.

'원 인 어 밀리언'이 울려 퍼지고 공연장은 더 큰 환호성으로 뒤덮였다.

이후 스크린에 '식스틴'을 비롯해 팀을 결성하면서 쏟아 부은 노력의 흔적들이 담긴 모습과 지난 연말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장면들이 흘러가자 멤버들은 눈물을 쏟아냈다.

남성 팬들 역시 눈물을 글썽였다.

모모는 공연 중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3년 '응답하라 1994'로 다시 회자됐던 미국 야구선수 요기 베라의 그 유명한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의 트와이스 식 해석, 이날 짝찬 무대는 트와이스의 전성기는 이제 시작이라고 항변하는 듯했다.

모든 안코르가 끝난 뒤에는 20일 0시 발매될 신곡 '낙낙(Knock Knock)' 무대를 공개했다.

지난해 1년 내내 음원차트를 휩쓴 트와이스는 콘서트를 끝내자마자 또 차트를 요동치게 하고 있다.

/뉴스

### 삿포로동계아시안게임 전복선수단 3개종목 8명 선수 출전

제8회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이 지난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일본 삿포로에서 빙상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등 5개 종목 30개국 2,000여명의 대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하며 개최되는 가운데 전라북도 선수단은 빙상, 바이애슬론, 스키(스노보드, 스키점프) 등 3개 종목 8명의 임원 및 선수들이 참가해 메달 사냥에 나설 예정이다.

전복선수단은 빙상 종목에 전북도청 박세우 선수가, 바이애슬론 종목에 무주군청 김용규선수와 도 체육회 소속 박지애, 고은정 선수 무봉고 출신인 포천시청 이인복 선수 무주고 출신인 평창군청에 문지희 선수가 출전하며 스노보드에 전복스키협회 이광기 선수가, 하이원소속에 설천고 출신인 최홍철 선수가 스키점프 종목에 참가하게 된다.

경기는 21일 스키점프 종목 최홍철 선수의 노달힐 부문 본선경기가 진행될 예정이며 23일에는 스프린트 10km 7.5km 부문 바이애슬론 선수단의 결선경기가, 24일부터 28일까지 스노보드와 바이애슬론 결선이 연이어 진행될 예정이다.

/김민근기자

### 제54회 전북도민체육대회 참가신청 접수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는 오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부안군일원에서 개최되는 '제54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의 임원 및 선수 참가신청 접수를 2월 20일부터 3월6일까지 15일간 진행한다.

도 체육회는 3월6일 접수마감 후 3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참가신청 열람확인 후 15일 토너먼트 종목 대진추첨을 거쳐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대상은 전라북도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체육회 홈페이지(<http://www.jsports.or.kr>)를 참고하면 된다.

/김민근기자

### 호원대 펜싱팀 청소년 대표선발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펜싱팀 선수들이 본격적인 시즌을 앞두고 기본 좋은 소식을 전했다.

호원대 펜싱팀은 지난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강원도 양구에서 개최된 2017세계청소년·유소년 펜싱선수권대회 파견선발전에 3명이 선발되는 성적을 거두었다.

이번 대회에 선발된 고예인, 이건우, 이상성 선수는 오는 4월에 불가리아에서 열리는 2017 세계청소년·유소년 펜싱선수권대회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출전하게 된다.

/김민근기자

### 삿포로AG 스노보드 이상호, 대회 첫 2관왕

한국 알파인 스노보드 '간판' 이상호(22·한국체대)가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첫 2관왕에 등극했다.

이상호는 20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의 데이네 스키장에서 열린 대회 스노보드 알파인 남자 회전에서 1·2차 시기 합계 1분16초09를 기록해 1위에 올랐다.

전날 대회장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이상호는 "늘 회전을 더 잘했다. 기대를 하고 있다"며 각오를 드러냈고, 여세를 몰아 2관왕 등극에 성공했다.

전날 대회에서 금메달을 받는 특별한 경험을 했던 이상호는 대회 첫 2관왕의 영예를 누렸다.

지난해 12월 이탈리아 카레체에서 열린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에서 한국 스노보드 사상 월드컵 대회 최고 성적인 4위에 오른 이상호는 아시아 무대가 자신에게 잡히는 것을 한껏 입증했다.

/김민근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